



[정책동향] 美 낙농업계, 정부의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 발표 환영

– USDA, 4천억원 규모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 시행 발표로 낙농업계 환영



최근 미국 농무부(USDA)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온 푸드박스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4억 달러(약 4,480억원) 규모의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낙농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전미낙농식품협회(IDFA)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된 영양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자선 단체 등과 꾸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유제품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미국낙농가연합(NMPF)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낙농가는 물론 식량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가정에 유제품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모든 산업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출처 : perishablenews.com, 4월 14일자 >

[업계동향] 알라푸드, 유성분 활용 영양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착수

– 파파야 과육에 우유 및 유청 성분 첨가 단백질바 개발

– 에티오피아 저소득층의 영양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서



유럽 최대 유가공조합인 알라푸드가 유성분을 활용해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영양 강화를 위한 UN 산하 국제연합 ‘GAIN(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이 주도하는 4개년 프로젝트로 알라푸드는 파파야 과육에 우유 및 유청 성분을 첨가한 단백질바 레시피와 시제품을 개발한데 이어 에티오피아의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영양 강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파파야는 에티오피아 88만 농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입원으로 비타민 A, B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년 수확량의 30%가 부패되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알라푸드는 저렴한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 수확 후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저렴하고 영양가 풍부한 제품을 공급함은 물론 식품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도구를 개발하고 에티오피아 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dairyindustries.com, 4월 16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